

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

(2)

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오심에 관하여 하신 말씀

성경: 마 24:27-28, 25:1, 26:64, 계 2:28, 3:3, 11, 22:12, 20

I. “왜냐하면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, 사람의 아들이 임하는 것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” —마 24:27.

- A.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에는 두 방면, 곧 그분의 깨어 있는 믿는 이들과 관련된 비밀한 방면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 및 이방인들과 관련된 공개적인 방면이 있다.
- B. 번개는 대환난 후에 일어날 공개적인 방면을 상징하고, 도둑이 오는 것은 대환난 전에 일어날 비밀한 방면을 상징한다—마 24:29-30, 43.
- C. 번쩍이며 땅을 치는 번개와 같은 주님의 오심은 주님의 파루시아의 마지막에 대한 표징일 것이며, 이것은 주님께서 전기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암시한다—마 24:3, 눅 17:24.

II. “시체가 있는 곳마다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입니다.” —마 24:28.

- A. 독수리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이들을 가리킨다.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이들은 신속히 나는 군대처럼 와서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과 맞서 싸우고 그들을 멸할 것이다—출 19:4, 신 32:11, 28:49, 사 40:31, 호 8:1.
- B.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이들은 독수리처럼 신속히 공중에서부터 나타날 것이다.

III. “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.” —마 25:1.

- A. 우리는 나가는 처녀들이고, 그리스도는 오시는 신랑이시다—참조 마 9:15.
- B. 성경에는 우주적인 부부, 곧 신랑과 신부가 있다.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신랑이실 것이다.
- C. 하나님의 다스림인 왕국은 그리스도의 결혼과 관련이 있고, 그리스도의 결혼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완성된 결과이다—계 19:7.
 - 1.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신성한 생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신부를 얻는 것이다—요 3:29.
 - 2. 성령은 역대로 계속 일해 오셨고, 그 결과 이 목표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이다. 그럴 때 신부, 곧 이기는 믿는 이들이 준비될 것이고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.

IV. “장차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.” —마 26:64하.

- A.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이셨고, 부활하신 이후 하늘에서도 사람의 아들이시며(행7:56),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도 사람의 아들이실 것이다.
- B.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 주님은 반드시 사람이셔야 했다.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수행될 수 없고 천국이 이 땅에 조성될 수도 없다—마 4:4.

V. “내가 또 그에게 셋별을 줄 것이다” —계 2:28.

- A.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는 그분의 이기는 이들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셋별로 비밀하게 나타나실 것이고,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해로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것이다—계 22:16, 말 4:2.
 - 1. 왕국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해로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것이다.
 - 2. 대환난 전에 주님은 그분의 이기는 이들에게 셋별로서 은밀하게 나타나실 것이다.
- B. “주 맑은 셋별로서 날 깨우는 보상. / 흑암이 깊어질수록 날 비취 주시네. / 주여 내 눈을 밝게 해 주 빛 사모케 해. /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주 맞게 하소서.” (찬송가 156장).

VI. “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,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, 내가 어느 때에 내게 올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.” —계 3:3하.

- A. 도둑은 알지 못하는 때에 귀중한 것을 훔치러 온다.
- B. 주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도둑같이 은밀하게 오시어 그분의 보물인 그들을 가져가실 것이다—마 24:43.
- C. 그리스도는 값진 것들을 ‘훔치러’ 오실 것이므로, 우리는 은밀하게 오실 주님께서 ‘훔쳐 가실 만 한’ 가치가 있는 귀중한 존재가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.
- D.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훔쳐 가실 만한 사람이다.
- E.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므로 우리는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—마 24:42, 44.

VII. “내가 속히 올 것이다.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.” —계 3:11.

- A.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, 주님은 이 교회를 그분의 오심에 대한 지각 안으로 이끄신다.
- B.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의해 고무되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.
- C.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을 증언하는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어야 한다.

VIII. “보아라, 내가 속히 올 것이니, 나의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다.” —계 22:12.

- A. “내가 속히 올 것이니” 라는 말은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신 경고로서,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보상을 상기시킨다—계 22:7, 20.
- B. 이 보상(직역하면, 삿)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믿는 이 각자에게 주어질 것이다—고후 5:10, 고전 4:5, 롬 14:10, 마 16:27.

IX. “‘그렇다. 내가 속히 가겠다.’ 아멘. 주 예수님! 오십시오.” —계 22:20.

- A. 다시 한 번 주님은 그분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신다—계 22:7, 12.
- B. 성경 전체는 “주 예수님! 오십시오.” 라는 기도로 표현된,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갈망으로 끝맺는다.